

통합의료보험법 제정건의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1996. 9. 18

제안자 : 김성인 의원 외 4인

주 문

- 별첨 "통합의료보험 제정 건의문"과 같이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 이의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국회, 관련기관등에 건의한다.

제안이유

-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직장, 지역공무원 등 417개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 .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교직원의료보험조합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적 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 . 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은 4조 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렀음에도 지역 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보험료 인하, 보험적용 일수 확대 특수진료에 대한 보험확대 적용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 .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많은 행정인력낭비와 국가적 재정손실을 가져왔고 특히 '95년도에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한 7,553억원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 등 관리비에 지급되었다.
- 위와같이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함.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문

지난 '89년 농민을 포함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는 보다 싼 가격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장 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직장, 지역, 공무원 등 41개 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그 역기능이 확대되어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우선 농업인과 도시 자영업자들을 가입대상으로하는 지역의료보험은 직장 의료보험이나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적 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의료기관이 드물고 의료서비스에 질도 낮고 소득수준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가난한 농업인과 도시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영세민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 왜곡된 현실은 직장이나 공.교의보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의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가족수 나아가 세대당 기본금까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장이나 공.교의보에 속해있는 가입자들도 현행제도에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이 4조 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당연히 조치해야할 보험료 인하, 보험적용일수 확대, MRI 등 특수진료에 대한 보험료 적용 확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그직을 퇴직하면 바로 지역의보에 자동 편입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파행적인 지역의보의 운영 때문이다.

아울러 직장, 지역, 공무원 등 400여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는 많은 행정인력의 낭비와 국가적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95년도의 경우 정부가 지역의보에 지원한 7,55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실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등의 관리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그것이다.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1987년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는 바람에 오늘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총재로서 현 김영삼 대통령도 통합의료보험 일원화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합주이나, 통합주이나에 대해 다시금 논쟁을 길게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과 민심을 토대로 통합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KBS 여론조사 결과 77%의 다수 국민들이 통합 일원화에 찬성 하였고, 의학자들의 89%, 의사 9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금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의 항의와 농민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전 국민의 요구이고, 또한 과중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치료비 부담때문에 병원에갈 엄두도 못내는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위해 시급히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할 것을 화순군민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1996. 9. 21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